

하루를 시작하며



이 종 실
수필가·시인·한우리 연구소 선생

‘밥’은 정이 많이 묻은 말이다. “밥은 먹었느냐?” 하는 인사가 반갑고 “언제 밥 한번 먹자.”는 빈말인 줄 알면서도 고맙다. ‘밥벌이’에서의 밥은 생계비이고, 밥상에는 밥 말고도 국과 여러 반찬들이 함께 오른다. ‘밥맛’은 좋아도 사용에는 조심해야겠다. ‘뭇뚱이가 눈에 거슬리고 뭇살맛아 상대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니 말이다. 밥값은 밥을 먹은 값 외에 그만큼의 일이나 대가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밥값(을) 하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책무를 잘하다’는

밥값 하기와 주인의식

뜻이라고 한다. 밥값 하기는 당연하게 주어진 제 역할을 하는 일이다. 가정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 직장과 회사가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게 돕고 자체적으로도 목표를 달성하는 일, 지방 행정이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복리를 위해 제도와 법령을 잘 시행하는 일 등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교통과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소식을 자주 접한다. 이런 사건·사고는 그 분야의 어느 단계에서 누군가가 제 역할을 제대로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 문명사회에서 천재지변 외에 불가항력적일 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인재라고 부른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유기체로서, 그 건강성과 성패는 내부 공동체들과 구성원들의 ‘밥값 하기’에 달렸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거대한 기계라 할지라도 하나 하나가 헐겁거나 톱니바퀴들이 서로 틀어지면 제구실을 할 수 없다. 작은 부속품 하나도 돌고 자체적으로도 목표를 준다. 이게 유기체의 특성이다. 지역사회는 자신을 포함하여 낱줄 씨줄로 여러 유기적인 조직과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체들은 각기 또다시 단체와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 이런 유기적 체계에서 개인과 단위 조직의 역할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다시 그들에게 되돌아온다. 주역이든 조역이든 그것이 하는 밥값이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게 없다. 공동체가 밥값을 제대로 하려면 대표와 회원들이 반드시 주인의식을

을 지녀야 한다. 수장이 감투나 사익을 탐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묵인하는 단체는 건강하지 않다. 으뜸인 자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야릇사람들의 ‘옹비어천가’에 심취하여 본분을 잊는다면 이곳도 존재의 가치가 적다. 멤버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서로를 추켜세우면서 ‘도토리 키 자랑하기’가 주를 이루는 그룹은 친목 모임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단체를 바로 세우고 제구실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역량에 다 주인의식을 더해야만 한다. 주인의식은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공익을 체화하고 그 실현에 정성을 쏟는 거다. 열정과 헌신이 없이 명리만 누린다면 그는 밥만 죽내며 본분을 그르치고 있다. 이때는 그가 누구든 ‘밥맛’이라는 평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를 명심해야 하겠다.

사설

가뭄·폭염 상시화 대비 근본대책 세워야

광복절 연휴 제주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비가 내렸다. 당근 주산지의 밭 가뭄은 일단 습동을 틔웠지만 도내 곳곳에서는 주택침수와 도로 토사 유출 등의 생체기도 남겼다.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농가의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갇 바야한 어린 당근 묘가 강한 햇볕과 고온에 말라 죽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뭄·폭염 현장 대응에 투입하기로 했다. 교부세는 가뭄 대응 분야에 8억1600만원, 폭염 대응 분야 6억4100만원 등 14억5700만원이다. 제주도는 가뭄 대응 교부세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용수 관로 설치, 급수차 임차, 물백·양수기 등 급수 장비 확충, 농임업

재해 대응 물품·장비 구입 등에 투입한다. 폭염 대응 교부세는 공기 차단막 설치, 전통신장 냉각안개 분사장치 설치, 그늘막 유지보수 등에 쓰인다. 제주도는 확보한 교부세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관정·급수차·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 가뭄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심화로 가뭄·폭염이 상시화 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반복되는 가뭄·폭염에 대비한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가뭄과 폭염을 상시적인 농업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주도와 정부에 요구한 이유다.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열린마당

주유는 셀프여도 안전은 셀프가 아니다



김 양 구
남원119센터 소방사

주유소에 들러 직접 차량에 연료를 넣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셀프주유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익숙함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휘발유 등의 연료는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을 가진 위험물이다. 여름철에는 유증기 발생이 증가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유증기가 점화원을 만나면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어렵지 않다. 주유 전

에는 차량의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패드를 접촉해야 한다. 주유 중에는 화기를 멀리하고, 차량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주유를 마친 뒤에는 주유노즐을 원위치하고 주유구를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방심이다. 유류가 새거나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주유를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익숙한 행동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는다. 셀프주유소의 ‘셀프’는 주유 방식에만 해당할 뿐 안전까지 혼자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심을 경계하고 기분을 지키는 것이 큰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주유는 셀프로 하더라도 안전은 셀프가 아니다. 한 번 더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이 나와 가족, 제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교육청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본예산 앞두고 구조조정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구조조정에 착수. 도교육청은 18일부터 세출예산(한 회계 연도의 총지출에 대한 예산) 구조조정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대상 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인데,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계속사업의 관행적 편성지양,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상황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세출부터 조정해 보자는 취지”라며 이 과정을 통해 신규 공약 재원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김지은기자

서귀포자연휴양림 새 단장

○…서귀포시가 지난 3~7월 사업비 2억1600만원을 투입해 서귀포자연휴양림 휴게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선베드, 탁자, 벤치 등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 이용객의 휴식공간을 확충. 아울러 8월 한 달간 성수기 시설물 집중점검을 통해 숙박시설, 야영장, 탐방로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설물 파손 및 노후 상태, 안전시설 이상 여부를 확인해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시 관계자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은 무더위를 피해 자연을 즐기 좋은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무장애나눔숲길(1195m)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반도체 쏠림 넘어 지속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제주지역 수출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42개 수출기업의 통관 기준 수출액은 4억423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5.6% 증가했다. 증가율도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가장 높아 그야말로 제주수출이 전성기를 맞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수출 기반이 넓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수출액 1위인 반도체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76.5%를 차지했고, 상위 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2.3%에 달했다. 반면 상위 5개사를 제외한 137개사의 수출액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0.4% 감소하는 등 반도체와 몇몇 기업이 수출 총량을 끌어올렸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상위 5개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출 비중은 2023년 상반기 26.1%에서 올해 7.7%로 떨어졌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상

반기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68개사에 머물렀다. 따라서 지금 제주에 필요한 수출시장의 허리춤으로 볼 수 있는 10만~1000만달러 규모의 중견 수출기업들을 키워 수출 생태계 전반의 체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려면 제주도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제품 경쟁력 강화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농수축산물과 화장품 등 제주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의 수출 산업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업황의 변동성이 큰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더라도 전체 수출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수출 성장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예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